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 개발 예비연구*

구 효 진 이 윤 정[†] 김 덕 희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김 신 미 김 태 호 주 은 정 최 진 선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우석대학교 교육학과 우석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관한 심리적 구인을 살펴보고 이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척도화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개념을 명확히 하고 6개의 하위변인(배타감, 관심도, 영향력, 편견, 수용, 그리고 신뢰도)을 선정한 후, 각 변인별로 10문항씩을 개발하여 총 60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예비문항 제작 후 전문가와의 내용타당도 분석과정에서 8문항이 제거되어 52문항이 선정되었다. 예비검사에서 청소년 및 성인 56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 분석결과, 22문항이 제거되어 총 30문항이 본 검사에 사용되었다. 629명을 대상으로 한 본 검사결과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정을 거쳐 2문항이 제거되었으며 최종 28문항이 선정되었다. 이후 최종 문항의 잠재변수와 실제변수 사이에 설정된 관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준타당도 분석을 위해 150명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의 각 하위요인과 기존 다문화관련 태도검사로 사용되었던 QDI(The Quick Discrimination Inventory)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개발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결혼이주여성, 태도, 측정도구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이윤정,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33번지
E-mail : yjlee@woosuk.ac.kr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보고된 한국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ies)의 급격한 수적 증가로 인해 우리사회는 단일민족국가에서 다인종·다문화(multi-racial & multi-cultural society)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세계화(globalization)의 한 측면으로 본다면, 그 주된 원인은 교통 및 통신의 발달, 국가 간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 격차로 인한 인구이동률의 증가뿐 아니라, 결혼을 매개로 타국으로 이민 가는 여성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Casles & Miller, 2003; Hall, 2001; Pieterse, 1995). 이러한 세계적 동향과 맞물려 한국사회는 농어촌에 결혼적령기 남성들의 혼인문제를 이주여성들을 통해 해결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구효진, 2007). 이로 인한 이주여성의 증가는 한국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와 젊은 연령층의 이탈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로 발생하게 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불화, 이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국 남성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은 우리 사회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시켰다(구효진, 2007; 양순미, 2006; 김유경, 2005; 이혜경, 2005).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문화 및 사회 적응의 어려움에서부터 가정 붕괴의 잠재적 위험(이수진, 2010;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김진희, 박옥임, 2008;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전라남도, 2006; 보건복지부, 2005), 나아가 이들 자녀에게 발생 가능한 발달지연의 문제(구효진, 2009; 유승애, 2009; 정순연, 2008; 구효진, 최진선, 2007; 권미지, 2006) 등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이들 대부분

은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 혹은 그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상의 어려움이나 이들에게 발생 가능한 잠재적 문제들을 다루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한국인이 다문화가정이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송은(2007)은 주변 한국인이 결혼이주여성에게 갖는 태도가 이주여성뿐 아니라 그들 자녀의 정서 및 행동상의 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부정적이면, 이는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그들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해외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국민들은 이민자나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을 경계할 가능성이 높으며(Kalin, 1996; Berry & Kalin, 1995), 자민족 중심주의로 인한 인종적 편견은 집단과 개인의 특성을 넘어 상당히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Duckitt, 2000). 또한 한 국가로 유입되는 이민자 및 그들 가족구성원의 수가 급증하게 될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긴장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1993). 따라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인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문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과 그들 가족구성원에
 계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태도라는 개념은
 ‘개인의 행동과 그 행동의 가능성에 방향을
 부여하는 심리적 과정이며, 언제나 사회적 가
 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정길
 수, 1985). 또한 Fishbein와 Ajzen(1975)도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태도란 ‘어떤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또는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상태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도록 하는 학습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Baggett는 그의 1994년 연구에서 태
 도는 경험을 통해 습득된 인지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가치체계와 함께 형
 성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태
 도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갖는 학습된 인지적
 가치판단으로서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의 개념에는 그 사회의 가치와
 신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과 범주가 왜곡될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 문
 제가 되기도 한다(Rehner, Ishee, Salloum, &
 Velasques, 1997). 또한 이러한 왜곡된 태도가
 집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고정관
 념, 편견, 차별적 성격을 갖는 문제들이 나타
 나게 된다(정길수, 1985). 이를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먼저 ‘고정관념’은 일정한 집단 내
 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는 단순화된 태도로서, 이것은 인종, 지
 역, 계층 등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고,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
 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이
 민영, 1999). 다음으로 ‘편견’은 특정 집단 혹
 은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 없이
 형성된 부정적 감정으로써 사회내의 소수집단
 에 대해 다수가 보이는 감정으로 나타날 때

문제시되며, 이는 사회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
 다(홍영오, 2000; 민경환, 1989). 또한 이러한
 편견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차별’이 되
 며, 이는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평등하게 대우하
 는 것을 의미한다(이민영, 1999; Dworkin &
 Dworkin, 1999).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 개인
 의 태도가 왜곡되면 편향된 사고를 하게 되고
 이것이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면 결국 한 사회
 의 구성원들 간에 차별이 생겨나 국가내 분열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사회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차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인 ‘태도’에 관
 한 연구는 주로 해외(Johnson & Lecci, 2008;
 Jackman, Wagner, & Johnson, 2001; Ponterotto,
 Rieger, Barrett, & Sparks, 1995; Sodowsky, Taffe,
 Gutkin & Wise, 1994; LaFromboise, Coleman, &
 Hernandez, 1991; Bogardus, 1928)에서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경우, 1920년대 미국 내 다양
 한 인종 집단 간 갈등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Bogardus(1928)가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감에 관
 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집단에 대해 갖는 친밀
 감의 정도를 의미하며 해당 집단과 어느 정도
 까지 접촉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를 의
 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7가지 하
 위요인은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혼
 인관계, 친한 친구, 가까운 이웃, 직장 동료,
 한 국가의 국민, 방문객 등으로 구분된다. 이
 를 통해 다른 인종집단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
 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성별,
 연령, 직업, 종교 등)에 대한 수용 정도를 측
 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후 Brigham은 그의 1994년 연구에서 다른 인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는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을 다른 인종에 대한 부정적 믿음, 사회적 거리감, 정책에 대한 태도,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로 구성하여 차별과 편견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또한 Ponterotto와 그의 동료들은 1995년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태도에 관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QDI(The Quick Discrimination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요인은 세 가지로 ‘인종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관한 인지적 태도’, ‘개인의 삶과 관련된 인종다양성에 대한 정의적 태도’, ‘여성의 평등과 관련된 일반적 태도’이며, 최근 다문화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들과의 공준 타당도 분석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유럽의 경우에는 Stephan과 Stephan (1996)이 스페인과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연구한 것이 있다. 이들은 ‘편견에 의한 사회통합의 위협’을 주장하며 위협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현실적 위협(realistic threats), 상징적 위협(symbolic threats), 집단 간 불안(intergroup anxiety), 그리고 부정적 고정관념(negative stereotype)이 그것이다. 또한 유럽 국가들에서 실시된 인종적 차별 및 태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에는 EUMC(EU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의 2003년 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유럽 전역에 있는 이민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다수집단 구성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로서, 대표적인 하위요인에는 다문화 및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 다문화 사회진입에 대한 거부감, 소수 인종에 대한 배

타감, 소수 인종에 대한 불신과 같은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측정도구를 기초로 유럽 국가들의 인종적 차별 및 태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에 반해 현재 국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태도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데,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 국내 관련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다문화가정의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국정홍보처의 2007년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8명(79.4%)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내 자녀가 국제결혼을 원한다면 허락하겠다’는 응답은 62.4%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와 유자녀 응답자가 미혼자나 무자녀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의 국제결혼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이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민자들을 ‘한 민족’의 범위인 가족이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외국인 혹은 외국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에 대해 ‘관대하다’(50.1%)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배타적’(49.4%)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타났는데, 이 역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외국문화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도 이주여성에 대한 적응 및 지원을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문화관련 태도에 대해서는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종에 대한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 발달 경향성'(정수진, 2009; 노경란, 2008)에 관한 소수 연구만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태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도구를 자체 개발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검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 다문화가정이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 개발 및 그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의 구성개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의 공준타당도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10대 청소년과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검사에서는 총 8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30명은 제외되어 총 56명(남자 27명(48.2%), 여자 29명(51.2%))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검사에서는 69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67명을 제외한 총 629명이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검사의 연구대상자들을 연령별로 나누면 10대 청소년 129명(20.5%), 20대 성인 124명(19.7%), 30대 성인 120명(19.1%), 40대 성인 130명(20.7%), 50대 이상 성인 126명(20.0%)로 나눌 수 있으며, 남녀집단으로 구분하면 남자는 316명(50.2%)이고 여자는 313명(49.8%)로 분포되어 있다(표 1 참조).

표 1. 본 검사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집단구분	남	여	계
10대	64(10.2)	65(10.3)	129(20.5)
20대	66(10.5)	58(9.2)	124(19.7)
30대	59(9.4)	61(9.7)	120(19.1)
40대	66(10.5)	64(10.2)	130(20.7)
50대 이상	61(9.7)	65(10.3)	126(20.0)
총 계	316(50.2)	313(49.8)	629(100.0)

연구 도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개별 인터뷰와 문헌연

구(Johnson & Lecci, 2008; Jackman et al., 2001; Graham, Cohen, Zbikowski, & Secrist, 1998; Mills, Daly, Longmore, & Kilbride, 1995; Ponterotto et al., 1995; Brigham, 1994; Sadowsky et al., 1994; LaFromboise et al., 1991; DuBois & Hirsch, 1990; Ramsey & Myers, 1990)를 실시하였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개별 인터뷰에서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 5명(남자 3명, 여자 2명)과 20대 성인 6명(남자 3명, 여자 3명), 30대 성인 5명(남자 2명, 여자 3명), 40대 성인 6명(남자 3명, 여자 3명), 50대 이상 성인 5명(남자 3명, 여자 2명) 총 27명을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위치, 다양한 직업군 등에서 의도표집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련된 개방형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해외의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변인을 총 6가지 요인인 배타감(Stephan & Stephan, 1996; Brigham, 1994), 관심도(Mills et al., 1995; DuBois & Hirsch, 1990), 영향력(Brigham, 1994), 편견(Stephan & Stephan, 1996; Brigham, 1994), 수용(Graham et al., 1998; Ramsey & Myers, 1990; Bogardus, 1928), 신뢰도(Hoxter & Lester, 1995; Hallinan & Williams, 1989)로 구성하였다. 기존 문헌들과 개별 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한 각 변인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배타감'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갖는 한국인의 배타적인 느낌과 태도이며, '관심도'는 결혼이주여성의 고유문화나, 언어, 한국사회의 적응 등에 관한 적극적 관심 및 태도이며, '영향력'은 결혼이주 여성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한국사회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 다음으로 '편견'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과 관련된 태도이며, '수용'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친근하고 개인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태도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신뢰도'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한국인이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한 태도라 하겠다. 각 요인별로 10문항씩 총 60문항이 선정되었으나, 이후 전문가 교수 6인과 박사과정생 1인과의 논의를 거쳐 8문항이 제거되어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반응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QDI(The Quick Discrimination Inventory)

본 연구의 공준타당도 분석을 위해 기존 해외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들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Ponterotto 등(1995)의 QDI(The Quick Discrimination Inventory)도구를 변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QDI는 3가지 하위요인(인종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관한 인지적 태도, 개인의 삶과 관련된 인종다양성에 대한 정의적 태도, 여성의 평등과 관련된 일반적 태도)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마다 반응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되도록 하였다. 이후 분석과정에서 이를 역채점하여 QDI점수가 높아질수록 인종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해짐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연구 절차

예비 검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를 개념화 및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개별 인터뷰를 통해 가설적 여섯 가지 요인을 구성한 후, 내용타당도 분석을 거쳐 문항을 선정하였다. 신뢰도 검증으로 문항평균, 문항범위, 표준편차, 문항-총점간 상관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선정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개수를 일차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주축요인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다. 공통분산의 초기 값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방법으로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석기법에 비해 변인간의 해석이 용이하고 간편한 직각회전(Varimax)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검사 시 사용된 측정도구에 적합한 요인 수 및 요인별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검사

본 검사에서는 예비검사를 통해 수정된 설문으로 총 629명의 자료를 수집한 후, 요인과 문항과의 상관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예비검사와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문항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종 선정된 문항에 대한 척도의 타당성과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나아가 본 측정도구의 공준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본 검사의 연구대상자 중 각 연령대별(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로 30명씩 총 150명(남자 74명, 여자 76)을 대상으로 기존 해외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들과 상관이 높은 QDI(The Quick Discrimination Inventory)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earson 적률

상관으로 분석하였다. 예비검사와 본 검사의 문항분석과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을 위하여 SPSS 17.0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AMOS 17.0을 사용하였다.

결 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 개발

측정도구 자료의 문항제작 및 문항분석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개별 인터뷰를 통해 가설적 6가지 요인을 구성한 후,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 교수 6인 및 박사과정생 1인과의 분석 및 논의를 거쳐 가설적 유형에 적합한 총 52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제작된 문항에 대해서 예비검사의 시행을 통해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거한 후, 평균값이 너무 극단적이거나 표준편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문항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평균은 1.91-3.89, 표준편차는 .75-1.36로 분포되어 매우 극단적인 값을 갖는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문항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서 가설적 하위 요인별로 문항-총점 상관이 .30미만인 문항과, 문항 간 상관이 너무 낮거나 지나치게 높은 경우의 문항들과 부적 상관계수가 나오는 22문항(배타감 1, 2, 6번; 관심도 1, 2, 3, 4번; 영향력 1, 4, 7, 8번; 편견 2, 6번; 수용 1, 3, 4, 5, 6, 7번; 신뢰도 1, 2, 5번)이 제거되어 총 30문항이 이후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의 구성요인 분석 및 문항 확정

예비검사 문항분석 후, 선정된 문항에 대한

표 2. 예비검사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근사 카이제곱	1054.28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자유도	465
	유의확률	.000

표 3.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의 예비검사 문항내용

문항	문항내용
요인 1 편견	
편견 1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립능력이 생기면 이혼도 서슴지 않을 것 같다.
편견 3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소홀 할 것 같다.
편견 4	결혼이주여성은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 할 것 같다.
편견 5	결혼이주여성은 삶을 계획적으로 살지 않을 것 같다.
편견 7	결혼이주여성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적을 것 같다.
편견 8	결혼이주여성들은 우리 한국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이 적을 것 같다.
편견 9	결혼이주여성은 위생관념이 약할 것 같다.
편견 10	결혼이주여성들은 게으를 것 같다.
요인 2 수용	
수용 2	나는 결혼이주여성을 도울 책임이 있다.
수용 8	결혼이주여성들을 대하면 정이 간다.
수용 9	나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동네에 살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
수용 10	나는 결혼이주여성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인 3 신뢰도	
신뢰도 3	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무언가를 빌려달라고 할 때 선뜻 빌려줄 수 있다.
신뢰도 4	나는 필요하다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내 물건을 맡길 수 있다.
신뢰도 6	나는 내가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어려운 문제에 대해 결혼이주여성과 의논할 수 있다.
신뢰도 7	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신뢰도 8	결혼이주여성들이 하는 말은 믿을 만하다.
요인 4 배타감	
배타감 3	나는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혹시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한다면 반대할 것 같다.
배타감 4	나는 결혼이주여성이 내 동료가 된다면 싫을 것 같다.
배타감 5	나는 결혼이주여성을 보면 나도 모르게 피할 것 같다.
배타감 7	나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다.
배타감 8	나는 우리 아이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와 가까이 지내면 싫을 것 같다.
요인 5 관심도	
관심도 5	나는 결혼이주여성의 고유문화나 언어에 관심이 있다.
관심도 6	나는 결혼이주여성의 풍습이나 음식에 대해 알고 싶다.
관심도 7	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 적응 중에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관심도 8	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들에게 자기고유의 문화를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궁금하다.
요인 6 영향력	
영향력 2	나는 결혼이주여성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까봐 걱정된다.
영향력 3	나는 결혼이주여성자녀들의 힘이 커져서 우리 자녀들의 입지가 약해지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
영향력 5	머지않아 결혼이주여성들로 인해 우리사회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영향력 6	결혼이주여성들은 결국 집단을 형성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힘을 쓸 것이다.

표 4.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의 예비검사 요인계수 행렬

문항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공통분
편견 1	.772	-.047	.160	.183	-.035	.160	.707
편견 3	.764	-.119	-.259	-.088	.143	.117	.614
편견 9	.753	.181	.013	.281	.060	.100	.685
편견 4	.749	-.143	-.072	-.046	.005	.270	.534
편견 7	.695	-.158	.096	.199	-.101	-.001	.641
편견 8	.692	-.073	.016	-.188	.040	-.114	.693
편견 5	.651	-.322	-.005	.204	-.103	.183	.567
편견 10	.631	-.047	.212	.221	.291	.248	.663
수용 2	-.092	.839	-.039	.008	.122	.041	.73
수용 10	-.171	.808	.211	.127	.094	.230	.804
수용 8	.002	.786	-.069	-.138	.185	-.147	.698
수용 9	-.345	.719	.185	.002	.146	.112	.704
신뢰도 7	.105	.101	.795	.048	.206	-.063	.712
신뢰도 6	-.078	.258	.784	-.094	.108	.071	.621
신뢰도 3	.025	-.111	.770	-.293	.087	.117	.713
신뢰도 4	.085	.126	.741	-.329	.061	.135	.703
신뢰도 8	-.059	-.217	.647	.197	.336	-.010	.703
배타감 8	.084	-.093	-.139	.803	-.166	.035	.708
배타감 4	.002	-.148	-.225	.776	-.054	.323	.782
배타감 3	.385	.192	-.205	.652	-.121	-.012	.667
배타감 7	.132	-.520	-.023	.623	-.157	.088	.71
배타감 5	.110	.187	.111	.606	-.322	-.099	.54
관심도 5	.037	.226	.156	-.123	.833	-.079	.792
관심도 7	.071	.235	.129	-.299	.789	-.172	.818
관심도 6	-.020	.054	.194	-.102	.769	-.038	.644
관심도 8	.127	.227	.213	-.186	.701	-.245	.698
영향력 6	.063	-.006	.040	-.008	-.002	.886	.791
영향력 2	.174	-.090	.134	.050	-.161	.765	.67
영향력 5	.293	.215	.127	.057	-.161	.750	.74
영향력 3	.245	.237	-.194	.323	-.310	.554	.662
고유치	4.667	3.493	3.367	3.253	3.111	2.821	
설명분산(%)	15.556	11.642	11.223	10.844	10.368	9.405	

* 요인 1은 편견, 요인 2는 수용, 요인 3은 신뢰도, 요인 4는 배타감, 요인 5는 관심도, 요인 6은 영향력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근사 카이제곱값이 1054.28이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표 3에,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요인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7번 반복계산을 통해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론적 요인과 문항들을 함께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편견, 요인 2는 수용, 요인 3은 신뢰도, 요인 4는 배타감, 요인 5는 관심도, 요인 6은 영향력이었다. 이를 근거로 본 검사에 사용된 측정도구에 적합한 요인 수 및 요인별 문항을 확정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의 타당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본 검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요인과 문항간의 상관이 적절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여 요인분석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에 제시되어 있듯이, 근사 카이제곱값이 6064.80이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하고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실시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요인 구조에서 다른 요인으로

뭉치는 편견의 1번과 9번 문항, 총 2개의 문항이 제거되었다.

이후 최종 선정된 28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으며, 확정된 문항들에 관한 신뢰도 검증결과로 산출된 내적합치도 Cronbach α 가 .75~.83로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구체화된 가설적 구인과 실제 문항인 측정변수 사이의 설정된 관계 간의 적합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χ^2 은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홍세희, 2000; 이순목, 1990) 표본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모형의 복잡도를 반영하는 적합도 지수인 RMSEA, TLI, CFI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RMSEA는 .05 이하, TLI, CFI는 .90 이상일 경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분석결과 표 8에 제시되어 있듯이 RMSEA는 .05로(RMSEA의 90% 신뢰도 구간은 .04~.05)로 TLI는 .90, CFI는 .90으로 나타나 6요인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의 모수 추정치에 대한 표준화 값은 표 9에 제시되어 있듯이 모든 문항의 표준화 계수값이 α 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문항들은 각각의 하위 요인들을 측정하는 데에 적합한 항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본 검사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근사 카이제곱	6064.80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자유도	378
	유의확률	.000

표 6. 본 검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요인계수 행렬

문항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공동분
신뢰도 7	.771	-.014	-.155	.095	.208	-.047	.673
신뢰도 4	.744	-.076	-.222	.191	.041	-.013	.647
신뢰도 6	.708	-.073	-.143	.153	.195	-.046	.590
신뢰도 3	.635	-.185	-.228	.231	.087	-.038	.552
신뢰도 8	.542	-.210	.014	.059	.256	-.033	.408
편견 4	-.026	.671	.127	.038	-.153	.244	.551
편견 3	-.331	.660	.055	-.031	.006	.145	.571
편견 5	-.045	.659	.301	-.083	-.034	.170	.564
편견 7	.120	.654	.276	-.104	-.193	.036	.567
편견 8	-.160	.627	.042	-.074	-.113	-.030	.440
편견 10	-.287	.480	.240	.164	.104	.185	.443
배타감 7	-.168	.179	.727	-.148	-.176	.104	.653
배타감 4	-.157	.272	.691	-.011	-.144	.096	.607
배타감 8	-.258	.243	.622	-.160	-.052	.047	.543
배타감 5	-.005	.173	.589	-.119	-.238	.187	.483
배타감 3	-.281	.043	.547	-.180	-.051	.154	.439
관심도 6	.156	-.052	.027	.816	.098	.000	.702
관심도 5	.175	-.050	-.122	.812	.092	.019	.716
관심도 7	.130	.018	-.203	.783	.124	-.013	.687
관심도 8	.134	-.053	-.225	.668	.174	-.160	.573
수용 2	.152	-.094	-.033	.141	.709	.143	.576
수용 10	.251	-.112	-.112	.197	.696	-.039	.613
수용 8	.043	-.023	-.327	.118	.673	-.033	.578
수용 9	.264	-.152	-.143	.046	.671	-.066	.569
영향력 3	-.033	.084	.184	-.090	-.068	.721	.575
영향력 2	-.053	.112	.130	-.076	-.106	.710	.554
영향력 5	-.054	.170	.132	-.010	-.017	.694	.531
영향력 6	-.014	.078	-.030	.056	.223	.660	.495
고유치	3.033	2.766	2.749	2.748	2.375	2.228	
설명분산(%)	10.833	9.880	9.818	9.815	8.483	7.959	

* 요인 1은 신뢰도, 요인 2는 편견, 요인3은 배타감, 요인 4는 관심도, 요인 5는 수용, 요인 6은 영향력이다.

표 7. 최종 확정된 문항들의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

요인		Cronbach a
요인 1	편견	.78
요인 2	신뢰도	.83
요인 3	배타감	.70
요인 4	관심도	.77
요인 5	수용	.75
요인 6	영향력	.81

표 8.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df	Q(χ^2/df)	TLI	CFI	RMSEA		
						LO90	Mean	HI90
값	890.87	335	2.66	.90	.90	.04	.05	.05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구조 모형의 최종 표준화계수가 그림 1에 제시되었으며, 각 6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도 산출되었는데, 이들 간의 관계 역시 α 수준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준타당도 분석

국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관련된 측정도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및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던 Ponterotto 등(1995)의 QDI(The Quick Discrimination Inventory) 도구를 사용하여 공준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QDI의 각 하위요인과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Pearson 상관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표 10에 제시되어 있듯이, QDI의 ‘인종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관한 인지적 태도’ 하위요인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6개 하위요인 중, 배타감($r=.49, p<.01$), 영향력($r=.38, p<.01$), 편견($r=.42, p<.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관심도($r=-.48, p<.01$), 수용($r=-.37, p<.01$), 신뢰도($r=-.41, p<.01$)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QDI의 ‘개인의 삶과 관련된 인종다양성에 대한 정의적 태도’ 하위요인과의 배타감($r=.50, p<.01$), 영향력($r=.36, p<.01$), 편견($r=.44, p<.01$)은 정적 상관을, 관심도($r=-.45, p<.01$), 수용($r=-.34, p<.01$), 신뢰도($r=-.44, p<.01$)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QDI의 ‘여성의 평등과 관련된 일반적 태도’ 하위요인과의 배타감($r=.54, p<.01$), 영향력($r=.35, p<.01$), 편견($r=.48, p<.01$)은 정적 상관을, 관심도($r=-.55, p<.01$), 수용($r=-.43, p<.01$), 신뢰도($r=-.46, p<.01$)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9. 결혼이주여성 태도 측정도구에 대한 모수 추정치(표준화 계수)

	모수		추정치
배타감 3	←	배타감	.550***
배타감 4	←	배타감	.704***
배타감 5	←	배타감	.580***
배타감 7	←	배타감	.751***
배타감 8	←	배타감	.658***
관심도 5	←	관심도	.794***
관심도 6	←	관심도	.734***
관심도 7	←	관심도	.770***
관심도 8	←	관심도	.664***
영향력 2	←	영향력	.698***
영향력 3	←	영향력	.714***
영향력 5	←	영향력	.573***
영향력 6	←	영향력	.409***
편견 3	←	편견	.615***
편견 4	←	편견	.642***
편견 5	←	편견	.698***
편견 7	←	편견	.602***
편견 8	←	편견	.495***
편견 10	←	편견	.534***
수용 2	←	수용	.580***
수용 8	←	수용	.626***
수용 9	←	수용	.681***
수용 10	←	수용	.735***
신뢰도 3	←	신뢰도	.706***
신뢰도 4	←	신뢰도	.746***
신뢰도 6	←	신뢰도	.707***
신뢰도 7	←	신뢰도	.736***
신뢰도 8	←	신뢰도	.5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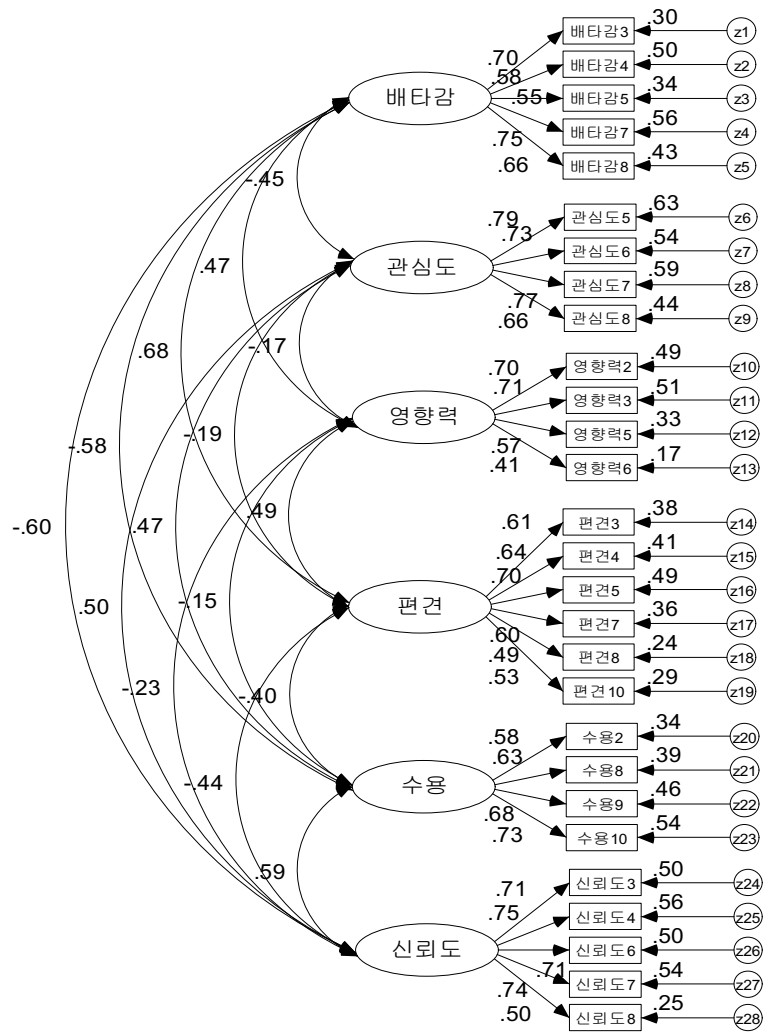


그림 1.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의 최종 경로모형

표 10. QDI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 하위요인간 상호상관(N=150)

	배타감	관심도	영향력	편견	수용	신뢰도
QDI 1	.49**	-.48**	.38**	.42**	-.37**	-.41**
QDI 2	.50**	-.45**	.36**	.44**	-.34**	-.44**
QDI 3	.54**	-.55**	.35**	.48**	-.43**	-.46**

**p < .01

* QDI 1은 '인종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관한 인지적 태도', QDI 2는 '개인의 삶과 관련된 인종다양성에 대한 정의적 태도', QDI 3은 '여성의 평등과 관련된 일반적 태도' 하위요인이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 개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기존 관련도구들에 대한 문헌 연구(Johnson & Lecci, 2008; Jackman et al., 2001; LaFromboise et al., 1995; Ponterotto et al., 1995; Sadowsky et al., 1994; Bogardus, 1928) 및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가설적 여섯 가지 요인을 구성한 후, 내용타당도 분석을 거쳐 가설적 유형에 적합한 총 52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제작된 문항에 대해서 예비검사 후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거하였다. 또한 평균값이 너무 극단적이거나, 표준편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문항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문항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서 가설적 하위 요인별로 문항-총점 상관인 .30 미만인 문항과, 문항 간 상관인 너무 낮거나 지나치게 높은 경우의 문항들과 부적 상관계수가 나오는 22문항이 제거되어 총 30문항이 이후 분석에 사용되었다.

예비검사 문항분석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론적 요인과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편견, 요인 2는 수용, 요인 3은 신뢰도, 요인 4는 배타감, 요인 5는 관심도, 요인 6은 영향력이었다. 이를 근거로 본 검사에 사용될 결혼이주여성 태도에 관한 적합한 요인 수는 6개로 확정되었다. 이렇

듯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된 6개 하위요인은 측정도구 개발 단계에서 정의된 조작적, 개념적 구인과 일치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증적,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 분석

본 검사 실시 이후에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과 문항 간의 상관인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선정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여 요인분석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총 2개의 문항이 제거되었다. 최종 확정된 문항들의 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75~.83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최종 선정된 28문항에 대해서는 적합도 지수인 RMSEA, TLI, CFI를 산출하였다. RMSEA는 .05, TLI는 .90, CFI는 .90로 나타나 6요인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의 모수 추정치에 대한 모든 문항의 표준화 계수값이 α 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들은 각각의 하위요인들을 측정하는 데에 적합한 항목들임을 나타냈다. 최종 각 6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도 산출되었는데, 이들 간의 관계 역시 α 수준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형성 검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검증에 대한 기준(홍세희, 2000, 1999; 이순목, 1999)을 만족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가 요인별로 문항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의 공준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실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준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관련 도구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해외의 선행연구결과에서 이미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태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던 Ponterotto 등(1995)의 QDI(The Quick Discrimination Inventory) 도구를 사용하였다. 공준타당도 검증을 위해 QDI의 3개 하위요인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의 6개 하위요인들 간의 Pearson 상관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 태도와 관련된 배타감, 영향력, 편견은 QDI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종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관한 인지적 태도, 개인의 삶과 관련된 인종다양성에 대한 정의적 태도, 여성의 평등과 관련된 일반적 태도)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의 하위요인에서 긍정적 태도와 관련된 관심도, 수용, 신뢰도는 QDI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국내에서 연구된 김랑희의 2010년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랑희는 일반유아 어머니들의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들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와 유사하게 QDI 검사를 사용하였다. 김랑희(2010)의 연구에서도 하위변인 중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된 ‘불신’, ‘편견’, ‘불안감’ 등에서는 QDI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긍정적인 인식과 관련된 ‘관심도’나 ‘신뢰도’의 경우에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에서 실시된 Jackman 등(2001)의 연구결과, 다문화아동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AMCS: Attitudes Toward Multiracial Children Scale)와 QDI와의 하위요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보고된 것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모두 본 연구에서 나타난 QDI의 공준타당도 검증 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의 구성요인은 가설과 일치하는 6요인인 편견, 배타감, 수용, 영향력, 관심도, 신뢰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에 대한 구성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통계적 절차에 따라 입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가 기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태도 검사도구의 공준타당도 검증에 활용되었던 QDI의 모든 하위요인과 높은 상관을 보여, 측정도구로서의 실제적 활용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가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Johnson & Lecci, 2008; Ponterotto et al., 1995; Sadowsky et al., 1994; LaFromboise et al., 1991; Bogardus, 1928)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다문화 관련 연구 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전라북도 지역의 629명에 국한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 및 성인을 표집하여 보다 일반화된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의 예비연구로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도구를 표준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집단의 표집과 더불어 연령대별 집단 수를 보다 확장하여야 한다. 또한 측정도구를 적용하는 데 있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교차타당도 분석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개인변인을 고려하여, 경제수준이나 학력 정도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표집하여 이들의 태도 차이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인의 개인변인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넷째, 공준타당도 분석 시 국내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다문화 관련 태도 측정도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QDI를 번역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측정도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후속연구에서 더욱 정확한 공준타당도 검증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효진 (2009).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수준과 공격성의 구조모형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9(4), 1-21.
- 구효진 (2007).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 유아의 비전형적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구효진, 최진선 (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43-67.
- 국정홍보처 (2007). *국제결혼이민자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여성가족부.
- 권미지 (2006).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조음음운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량희 (2010). 일반유아 어머니들의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들에 대한 인식 측정 도구 개발.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 (2005). 가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103, 47-72.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진희, 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27-160.
- 노경란 (2008). 다문화 시대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발달과 태도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46-168.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유승애 (2009). 4, 5, 6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발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영 (1999). 사회복지전공자들의 빈곤에 대한 태도: 태도 수준과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송은 (2007). 다문화가정의 문화이해를 위한 문학 활동 실행연구-필리핀 모-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8(2), 129-163.
- 이수진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정도와 부부관계만족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순복 (1999).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전라남도 (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 정길수 (1985). *사회심리학*. 서울: 법문사.
- 정수진 (2009). 다문화 시대 한국 청소년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연 (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 언어 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홍세희 (1999). 문항반응 이론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 차 workshop, 1-89.
- 홍영오 (2000). 암묵적 편견이 고정관념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ggett, P. D. (1994).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poor.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h. D. Dissertation.
- Berry, J. W., & Kalin, R. (1995). Reciprocity of inter-ethnic attitudes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 99-112.
- Bogardus, E. S. (1928). "Measuring Social Distance",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299-308.
- Brigham, J. C. (1994). College students' racial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23, 1933-1967.
- Castles, S., & Miller, M. J. (2003). *The Age of Migration*. Portland: Guilford.
- DuBois, D. L., & Hirsch, B. J. (1990). School and neighborhood friendship patterns of Blacks and White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524-536.
- Duckitt, J. (2000). Culture, personality, and prejudice. In S. Renshon & Duckitt (Eds.), *Political psychology: Cultural and cross-cultural foundations* (pp.89-107). London: Macmillan.
- Dworkin, A. G. & R. J. Dworkin (1999). *The Minority Report: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nic, and Gender Relations*, Harcourt race College Publishers.
- EUMC (2003). *Migrants, Minorities and Employment: Exclusion, Discrimination and Anti-Discrimination*

- in 15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publishing: Massachusetts.
- Graham, J. A., Cohen, R., Zbikowski, S. M., & Secrist, M. E. (1998).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race and sex factors in children's classroom friendship choices. *Child Study Journal*, 28, 245-265.
- Hall, P. (2001). Global city-reg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Scott, Allen J.(ed.),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Hallinan, M. T., & Williams, R. A. (1989). Interracial friendship choices in secondary schoo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67-78.
- Hoxter, A. L., & Lester, D. (1995). Social distance evaluations in White and African-American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80, 478.
- Jackman, C. F., Wagner, W. G., & Johnson, J. T. (2001). The attitudes toward multiracial children scal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7(1), 86-99.
- Johnson, J. D., & Lecci, L. (2008). Assessing anti-white attitudes and predicting perceived racism: The Johnson-Lecci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9-312.
- Kalin, R. (1996). Ethnic attitudes as a function of ethnic presence.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8, 171-179.
- LaFromboise, T., Coleman, H., & Hernandez, A. (1991). Development and factor structure of the Cross-Cultural Counseling Inventory -Revised.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5), 380-388.
- Mills, J. K., Daly, J., Longmore, A., & Kilbride, G. (1995). A note on family acceptance involving interracial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logy*, 129, 349-351.
- Pieterse, J. (1995) Globalization as Hybridization, in M. Featherstone, S., & Lash, R., Robertson (eds.), *Global Modernities*, London, Sage.
- Ponterotto, J., Rieger, B., Barrett, A., & Sparks, R. (1995). Assessing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A review of instrument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3), 316-322.
- Ramsey, P. G., & Myers, L. C. (1990). Salience of race in young children's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responses to social environm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1, 49-67.
- Rehner, T., Ishee, J., Salloum, M., & Velasques, A. D. (1997). Mississippi social workers' attitudes toward povety and the poor.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in*. 33(1), 131-142.
- Sodowsky, G., Taffe, R., Gutkin, T., & Wise, S. (1994).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Inventory: A self-report measure of multicultural competenc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2), 137-148.
- Stephan, W. G., & Stephan, C. (1996). Predicting Prejudi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 1-12.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1993). *The state of the world population 1993*. New York: Author.
- 1 차원고접수 : 2010. 8. 6.
 심사통과접수 : 2010. 12. 9.
 최종원고접수 : 2010. 12. 25.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Attitude Questionnaire toward Married Immigrant Women

Hyo Jin Koo

Yun Jung Lee

Duck Hee Kim

Woosuk University

Shin Mi Kim

Tai Ho Kim

Eun Jung Joo

Jin Sun Choi

Changwon University

Woos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and validate the factors of attitude questionnaire toward married immigrant women. Literature review as well as individual interviews were carried out and the questionnaire with six factors(exclusive attitude, concern, influence, prejudice, adaptation, and credibility) was composed of 60 items. Through content validity with 7 experts, 8 items were excluded and 52 items were chosen. The 52-item questionnaire of attitude toward married immigrant women was carried out on the subjects of 56 adolescents and adults. After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30 items of the reviewed attitude questionnaire toward married immigrant women were conducted on 629 subjects of adolescents and adults in Jeolla-province. Through reanalyz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2 items were excluded and 28 items were chosen. The results of confirmative analysis of 28 items of the final attitude questionnaire toward married immigrant women proved the model fitness of six-factored structure. The correlations between every sub-factor of the attitude questionnaire toward married immigrant women and all of the sub-factors of QDI(The quick discrimination inventory) also showed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developed questionnaire. Both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with th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Key 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attitude, questionnaire